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5호 [루체 제23147호] 주제99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당신들께서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형제적인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가장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쓰

2010년 6월 25일

아바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로씨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월 18일 플로르 예진스프바신문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발행식에는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의 인사들과 당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예스. 제. 우말라도바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

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져있다고 하면서 로작의 기본 내용과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를 철저히 관철하자》를 로씨야 나흐카 호르마트출판사에서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전집》 제87권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 《김일성전집》 제87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77 (198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역사적인 결론, 담화, 연설 등 39건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로작들이 발표되던 시기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적인 200일전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 창건 40돐을 성대히 기념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서 나서는 사상, 리론,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위업에 승진해 빛나게 해결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

며 자랑이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 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는 데에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자면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수령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특출한 품모와 자질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화신이기도 하며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예지, 드센 배짱과 담력, 필승의 기상,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 인민의 지도자이시였다.

고전적로작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21세기를 향도 하실 걸출한 령도자이시라는 데 대해서 전당과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대한 사상이 밝혀져 있다.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로선과 투쟁과업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다.

로작에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 40년간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해오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이 수록되어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발전시키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사업의 본질과 원칙, 투쟁과업과 방도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로작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등 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방도 그리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온 세대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튼튼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정무원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에서 5대과업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200일전투노적과 지휘를 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사회주의혁명적기치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들에서 주체적립장에 서서 당의 혁명적경제로선을 일관성있게 관철하며 우리 당의 대중성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우리 나

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견지하여 할 원칙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로작들은 원료, 자재보장과 협동생산,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주체농민의 요구를 구현하고 농사와 관련된 사업을 잘하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 철도의 전기화, 증량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전반적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로작들은 일꾼들이 당상을 더욱 단련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기공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지휘선원답게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백두산지구를 대로천막물판으로 더 잘 꾸러 혁명정신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보다 웅장화되게 건설하며 과학, 교육,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국제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천명되어 있다.

《김일성전집》 제87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피주신 혁명적대고의 불꽃들같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 당장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 더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

경공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힘있는 조직정치사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설과 공동주택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만들고 도안의 경공업공장에서 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생산성상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이하며 합주군과 고원군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어 상반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높이 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지방의 원료원천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1차소비품을 주민들에게 원만히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합주군과 고원군에서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합주군과 고원군의 일꾼들은 당장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울

라강도당위원회에서 책임일꾼들부터 앞장서서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비들의 현대화와 원료보장 등 체계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껏 떠맡아주고있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에 정치선전, 경제선전의 화력을 집중하여 경공업혁명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에술단을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을 경공업부문에 파견하여 생산과 기술개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는데 하는 한편 혁신사상과 근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간 도

당위원회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신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백두산물줄기공공장에 내려간 도당직업일꾼은 공장현대화에 필요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백두산물줄기공공장에 찾아가서 그들이 기술혁신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생산성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도록 힘있게 떠맡아주고 있다.

당장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빛내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충당감자공공장의 당조직에서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도록 힘있게 떠맡아주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혁신사상과 근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만가동시켜

합주군과 고원군에서

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며 1차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고 있다.

당위원회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들을 개건하며 1차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합주군에서는 장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잘 꾸려놓고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다른 공장들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의 개건과 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장공장의 모범을 본받아 종이공장, 기를가공

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생산공정들을 개건하는 사업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는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손색이 없이 훌륭한 꾸러민 장공장에 이 없는 원장, 간장을 비롯한 질 좋은 1차소비품이 생산되어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으며 화학일용품공장, 종이공장에서는 빨레비누와 학습장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장공장과 식료공에서는 제품포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군에서는 장공장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화학일용품공장과 종이공장, 철제일용품공장의 생산공정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계속 내밀고있다.

군에서는 1차소비품생산에 힘을 넣어 원장, 학교, 학습장, 장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생산공정들을 개건하는 사업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는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군에서는 1차소비품생산에 힘을 넣어 원장, 학교, 학습장, 장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생산공정들을 개건하는 사업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는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켜 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특히 청봉종합식료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대중의 열의가 최대로 분출되고있는 가운데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대생산도태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도안의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 대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전철 주

빨레비누를 비롯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있다.

장공장에서는 기술혁신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꾸려놓고 질 좋은 1차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상반기계획을 힘있게 앞당겨 수행한 기세높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영에군일용품공장과 화학일용품공장, 식료공장, 옷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에서는 부식물가공반과 공업생산리용한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농토산물, 자연리료, 제배리료, 유류자재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식료품과 일용품화물을 생산하는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합주, 고원군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덕으로 전기적정을 모르고 지방공업공장들을 만가동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경공업과학분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경공업과학분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동무호를 받들고 비약의 승점높이는 대조건투쟁들에 앞장서서 연구도입하여 성과를 안아왔다.

식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여러 단위들에 달려나가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연두부와 콩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면서 현실에서 빨리 큰 은을 나라내게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정자공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는데도 앞장서서 연구도입하여 성과를 안아왔다.

인민들에게 질 좋은 제품이 더 많이 차체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과학자들의 투쟁 소식은 발표연구집단을 비롯한 여러 연구집단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발효연구집단은 어느 한 군

의 장공장일꾼들과 기술자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목자생산공정에 힘쓰는 손질기를 제작설치한데 이어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강계목장에 나가 첫산및배양방법과 치즈만들기 및 숙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기공공들을 양성하고 생산능률을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자들은 라선기초식공공장과 연안식료공에서 장생산공정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데도 고치지 않고 품종을 확대할수 있게 하였으며 평양말기기가공공장에 필요한 여러종의 오모계에서 큰 견전을 이룩하였다.

대조건투쟁들에서 새차게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는 힘이나마 기여하려는 불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빛나는 창조적투쟁과 완강한 공격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들과 과학자들은 합정남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온갖 정열을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신의 지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침략과 살륙의 원흉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고발한다

반제민전중앙위원회 선전국 고발장 발표

【평양 7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구국전선》인터넷사이트에 의하면 반제민전중앙위원회(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7일 조선 민족에게 전쟁의 재난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흉이며 또다시 제2, 6, 25전쟁으로 무수한 백만 생명을 희생시킨 괴악한 전쟁악마 미제의 죄악을 폭로단죄하는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장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미국이 침미주주 리승만 독재정권을 사육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과 리명박 《전전》은 년초부터 력사의 진실을 심히 외곡하고 북침전쟁을 악랄하게 선동하는 《6.25전쟁 60주년기념》을 출간하여 매달려왔으며 이러한 판매국은 6.25를 계기로 극대히 달하였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6.25를 그 무슨 명절처럼 외관히 《기념》하는 짓거야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폭로해 주어야 한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은 력사의

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한것은 미국이 전쟁도발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는가를 웅변해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6.25전쟁이 미국이 이복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목적밑에 일으킨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침략전쟁이라는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은 전쟁 3년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유례없는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뜨였다.

미국은 방대한 침략력을 전쟁에 투입한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세균전, 화학전까지 감행하였으며 이복의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퍼부어 모조리 파괴하였다.

미국은 가장 엄중한 범죄는 123만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이다.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침략군은 1950년 가을 일제적으로 강경하였던 이북지역에서 쫓겨나는 자를 자르고 눈알을 뽑고 피부를 벗겨 죽이는것과 같은 처벌하는 야만행위를 저지른것을 인정하였다.

전쟁 3년간에 미제는 공장, 기업소 등을 5만 941동을 비롯하여 241만 600여동의 각종 건물들을 파괴하고 56만 3000여명의 농성자를 학살하였다.

미국은 이북지역만을 상대로 파괴와 살육을 일삼았지 아니였다. 미제침략군은 이남지역에 대해서도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대학살단행은 이 땅의 산천조토도 분노케 할정도로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1950년 7월말 미제살인귀들이

미국은 이남을 북침전쟁수행의 병참기지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침략전쟁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남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1954년 1월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처녀들과 부녀들도 있다. 3일간 이 도시에는 너희들의것이 될것이다.》 라는 살인명령에 따라 월미도주민지역을 초토화하고 서울에 진입하여 피에 주린 이리처럼 날뛰었다.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은 서울에서 양기살인마들이 애국자들의 머리카락을 벗겨 《기념》으로 나누어가지는 소름끼치는 행위를 저지르는데 대해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전쟁기간 《공미도협정》, 《통미보수협정》의 구실밑에 서울에서 13만 6000여명, 경기도와 전라남북도에서 55만여명, 충청남북도에서 16만 7000여명, 경상남북도에서 18만 9500여명 등 무려 124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살육하였다.

《한국인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라.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는 미제살인장군의 명령에는 달고도 남과 북이 따로 없었다.

《한》반도라는 평당어리가 필요한 미국에 있어서 이남민중의 생명이나 재산같은것은 안중에 없었다.

미국은 전쟁기간 이남지역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1만 8000여개, 교육과 공공건물 487만 8920여동을 파괴하고 농경지 97만 6900여정보를 불모지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제침략군은 남과 북에 다같이 엄청난 재난을 들뜨였다.

재난 사실은 지난 6.25전쟁이 미제가 전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었다는것을 폭로하여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제침략자들과 같이 무자비한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국악무도한 살인마, 희세의 전범자들을 알지 못하고있다.

방안은 70km의 핵무기로 16곳의 비행장을 파괴하는것이며 셋째 방안은 10~70km의 핵무기로 이복의 군사력을 대부분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새로운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해놓고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발명해왔던것을 낱말로 고발해주고있다.

남과 북에서 높아가는 통일운동이 저들의 《대북전락》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간주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통일열망이 고조될 때마다 음모적방법으로 그를 억누르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1960년 4월민중봉기를 계기로 비등된 남북통일기운을 《5.16군사쿠데타》로 짓눌렀으며 19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발표로 얼어붙은 겨레의 통일지향을 《유신정권》의 조작으로 가로막아나갔다.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미국은 극히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과 도락수동으로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을 찬물을 끼얹고 대결과 전쟁의 찬서리를 불어넣었다.

미국은 2000년에 들어와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에 정면도전하여 6.15자주통일시대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수석상봉과 관련한 4.8남북합의사가 발표되자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우방간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고아냈는가 하면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갖은 시비질을 다하였다.

특히 미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남당국에 저들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공세를 퍼부으면서 백지화할것을 요구하면서 파편적인 행위로 서슴지 않았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대가 시종일관 《결론없는 결판》이니, 《투명성》이니 하면서 6.15통일시대를 파탄내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극악한 침미사대역전 리명박이 《당선》된것은 6.15를 결판내기 위해 고활하게 책동해온 미국의 위악하고 비렬한 음모책동의 결과였다.

리명박패당을 내세워 남북관계에 파국에 몰아넣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미국은 최근에는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정세를 엄청난 전쟁의 문구에 몰아넣었다.

《천안》호사건은 침투침미 제2, 6.25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한 흉심일미에 미국의 각본에 따라 리명박패당이 연출한 상진과 주주의 비렬한 합작품, 날조품이다.

내외언론들도 《이 사건은 세계공중세를 숙여넘기려는자들의 고대 품이다. 이라크정세를 개시할 때 미국이 어떤 거짓정보로 유엔을 속여넘겼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천안》호사건 역시 미국의 작간이다.》고 하면서 미국의 북침도발용임을 명백히 까밝혔다.

6.25전쟁의 도발자, 희세의 살인마

미국은 지난 세기 중엽 우리 민족의 머리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뜨운 가슴스러운 침략자, 도발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전승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은 중세의 《고립주의》대신 《적국적인 정책》을 표방하면서 세계제국체제를 대외정책의 전략적목표로 전면에 제기하였으며 여기서 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한》반도를 《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리명박의 싸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결의 시험장》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리익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북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는것을 세계제국체제실현의 관건적인 문제로, 대 《한》반도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미국이 1949년 1월 28일국무성 정보조사국의 《구비문건 제 4849호》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리적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운운하며 반도정세를 지배할 야망을 드러내는데도 갈수 있다.

해방후 이 땅을 비점령으로 강점한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 무리 분격적인 북침전쟁계획수립에 달려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이복과 민주, 씨비리까지 점령할것을 예견한 침략적인 《A, B, C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리승만 역도와 공모하여 1949년초에 북침을 위한 군사적동맹체인 《국군》의 《북벌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주공적방향인 서부전선에서의 점진적공격과 함께 미공군의 지원밑에 동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을 배합하는 등 이복에 대한 전면적공격작전을 구체화한 북침전쟁장악본이었다.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즉시 《국군》의 편대편제를 사단편대로 개편하고 국군병력을 10만명으로 예비군병력을 20만명으로 증강

제2의 6.25를 불러오는 전쟁악마

평화는 전쟁의 참혹한 수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에 도전하여 정전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뛰었다.

미국은 6.25전쟁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용당할 효훈을 잃고 이 땅에 물러갈 대신 이남을 침략군사기지로 활용하기 거머쥐고 이복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대 《한》반도정책을 변질없이 추구하고있다.

전쟁책동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 당일말 미국이 조선

제2의 6.25를 불러오는 전쟁악마

평화는 전쟁의 참혹한 수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에 도전하여 정전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뛰었다.

미국은 6.25전쟁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용당할 효훈을 잃고 이 땅에 물러갈 대신 이남을 침략군사기지로 활용하기 거머쥐고 이복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대 《한》반도정책을 변질없이 추구하고있다.

전쟁책동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 당일말 미국이 조선

제2의 6.25를 불러오는 전쟁악마

평화는 전쟁의 참혹한 수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에 도전하여 정전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뛰었다.

미국은 6.25전쟁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용당할 효훈을 잃고 이 땅에 물러갈 대신 이남을 침략군사기지로 활용하기 거머쥐고 이복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대 《한》반도정책을 변질없이 추구하고있다.

전쟁책동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 당일말 미국이 조선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우리를 모해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인 합선침몰사건국제화책동이 극도로 달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핵각사에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공조》와 《지지》를 구걸하면서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포함한 불순한 도락문서를 거기어 꾸며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한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일당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뜨다나며 국제무대에서 비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가슴스럽기 그지없다. 피피들의 책동은 제정적인 사대적공격과 극도로 달한 동족대결평종의 발로로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보려는 비렬한 반공화국대결행위이다.

합선침몰사건은 남조선경의를 벗어나 다들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사건의 국제화에 힘을 쓰고 날뛰었다. 합선침몰사건조사에 《국제조사단》의 피피를 씌운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공조》와 유엔《국제제재》의 채택을 위해 미일상진들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나라들까지 변질나게 찾아다니며 애걸부절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을 생존방식으로, 북남대결의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피피들의 추악한 미국반역정적행위와 남로 부분별해지는 동족대결야망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합선침몰사건은 그 도락적진심이 낱말이 드러난 유치한 자작극으로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의혹과 모순투성이인 피피들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전면적인 제조사추장이 높아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조사결과》라는것을 이 나라, 저 나라들에 구차스럽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우리를 모해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인 합선침몰사건국제화책동이 극도로 달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핵각사에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공조》와 《지지》를 구걸하면서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포함한 불순한 도락문서를 거기어 꾸며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한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일당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뜨다나며 국제무대에서 비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가슴스럽기 그지없다. 피피들의 책동은 제정적인 사대적공격과 극도로 달한 동족대결평종의 발로로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보려는 비렬한 반공화국대결행위이다.

합선침몰사건은 남조선경의를 벗어나 다들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사건의 국제화에 힘을 쓰고 날뛰었다. 합선침몰사건조사에 《국제조사단》의 피피를 씌운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공조》와 유엔《국제제재》의 채택을 위해 미일상진들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나라들까지 변질나게 찾아다니며 애걸부절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을 생존방식으로, 북남대결의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피피들의 추악한 미국반역정적행위와 남로 부분별해지는 동족대결야망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합선침몰사건은 그 도락적진심이 낱말이 드러난 유치한 자작극으로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의혹과 모순투성이인 피피들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전면적인 제조사추장이 높아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조사결과》라는것을 이 나라, 저 나라들에 구차스럽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우리를 모해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인 합선침몰사건국제화책동이 극도로 달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핵각사에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공조》와 《지지》를 구걸하면서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포함한 불순한 도락문서를 거기어 꾸며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한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일당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뜨다나며 국제무대에서 비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가슴스럽기 그지없다. 피피들의 책동은 제정적인 사대적공격과 극도로 달한 동족대결평종의 발로로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보려는 비렬한 반공화국대결행위이다.

합선침몰사건은 남조선경의를 벗어나 다들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사건의 국제화에 힘을 쓰고 날뛰었다. 합선침몰사건조사에 《국제조사단》의 피피를 씌운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공조》와 유엔《국제제재》의 채택을 위해 미일상진들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나라들까지 변질나게 찾아다니며 애걸부절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을 생존방식으로, 북남대결의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피피들의 추악한 미국반역정적행위와 남로 부분별해지는 동족대결야망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합선침몰사건은 그 도락적진심이 낱말이 드러난 유치한 자작극으로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의혹과 모순투성이인 피피들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전면적인 제조사추장이 높아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조사결과》라는것을 이 나라, 저 나라들에 구차스럽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우리를 모해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인 합선침몰사건국제화책동이 극도로 달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핵각사에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공조》와 《지지》를 구걸하면서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포함한 불순한 도락문서를 거기어 꾸며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한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일당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뜨다나며 국제무대에서 비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가슴스럽기 그지없다. 피피들의 책동은 제정적인 사대적공격과 극도로 달한 동족대결평종의 발로로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보려는 비렬한 반공화국대결행위이다.

합선침몰사건은 남조선경의를 벗어나 다들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사건의 국제화에 힘을 쓰고 날뛰었다. 합선침몰사건조사에 《국제조사단》의 피피를 씌운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공조》와 유엔《국제제재》의 채택을 위해 미일상진들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나라들까지 변질나게 찾아다니며 애걸부절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을 생존방식으로, 북남대결의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피피들의 추악한 미국반역정적행위와 남로 부분별해지는 동족대결야망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합선침몰사건은 그 도락적진심이 낱말이 드러난 유치한 자작극으로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의혹과 모순투성이인 피피들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전면적인 제조사추장이 높아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조사결과》라는것을 이 나라, 저 나라들에 구차스럽

의연히 남아있는 《천안》호사건의 의문점들

로씨야신문 《네치비세씨야가제파》 1일부가 《천안》호사건, 의문점들 그날 남아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남조선인들과 외국인들로 조지되었다고 하는 《합동조사단》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안》호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결론하였다. 이들은 어뢰포리 부분구조와 《북의 어뢰설계》와 일치, 어뢰잔해에 남아있는 《북의 글씨체》로 씌어진 《1번》이라는 글을 실려고 들고있다.

파괴 《조사단》의 결론이 실지로 《그럴듯 한》것이런 말인가? 신문은 《조사단》이 《북의 소형잠수정》이 합선을 침몰시켰다고 하고있으나 소형잠수정에 중이여부를 탑재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라고 하면서 어뢰포리들은 왜 그처럼 낡은것으로 보이는가, 왜 《천안》호는 물밑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할 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연히 남아있는 《천안》호사건의 의문점들

로씨야신문 《네치비세씨야가제파》 1일부가 《천안》호사건, 의문점들 그날 남아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남조선인들과 외국인들로 조지되었다고 하는 《합동조사단》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안》호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결론하였다. 이들은 어뢰포리 부분구조와 《북의 어뢰설계》와 일치, 어뢰잔해에 남아있는 《북의 글씨체》로 씌어진 《1번》이라는 글을 실려고 들고있다.

파괴 《조사단》의 결론이 실지로 《그럴듯 한》것이런 말인가? 신문은 《조사단》이 《북의 소형잠수정》이 합선을 침몰시켰다고 하고있으나 소형잠수정에 중이여부를 탑재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라고 하면서 어뢰포리들은 왜 그처럼 낡은것으로 보이는가, 왜 《천안》호는 물밑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할 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연히 남아있는 《천안》호사건의 의문점들

로씨야신문 《네치비세씨야가제파》 1일부가 《천안》호사건, 의문점들 그날 남아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남조선인들과 외국인들로 조지되었다고 하는 《합동조사단》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안》호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결론하였다. 이들은 어뢰포리 부분구조와 《북의 어뢰설계》와 일치, 어뢰잔해에 남아있는 《북의 글씨체》로 씌어진 《1번》이라는 글을 실려고 들고있다.

파괴 《조사단》의 결론이 실지로 《그럴듯 한》것이런 말인가? 신문은 《조사단》이 《북의 소형잠수정》이 합선을 침몰시켰다고 하고있으나 소형잠수정에 중이여부를 탑재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라고 하면서 어뢰포리들은 왜 그처럼 낡은것으로 보이는가, 왜 《천안》호는 물밑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할 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연히 남아있는 《천안》호사건의 의문점들

로씨야신문 《네치비세씨야가제파》 1일부가 《천안》호사건, 의문점들 그날 남아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남조선인들과 외국인들로 조지되었다고 하는 《합동조사단》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안》호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결론하였다. 이들은 어뢰포리 부분구조와 《북의 어뢰설계》와 일치, 어뢰잔해에 남아있는 《북의 글씨체》로 씌어진 《1번》이라는 글을 실려고 들고있다.

파괴 《조사단》의 결론이 실지로 《그럴듯 한》것이런 말인가? 신문은 《조사단》이 《북의 소형잠수정》이 합선을 침몰시켰다고 하고있으나 소형잠수정에 중이여부를 탑재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라고 하면서 어뢰포리들은 왜 그처럼 낡은것으로 보이는가, 왜 《천안》호는 물밑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할 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안》호사건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천안》호사건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천안》호사건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천안》호사건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는 절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

감보자왕국 국왕과 대왕이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 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감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대형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함이다. 감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함이다. 감보자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이라고 적혀져있었다.

국왕과 대왕의 위엄에 따라 대형꽃바구니들을 왕궁담당 부수상 쉘 울을 단장으로 하는 감보자왕국정부 왕궁성대보단이 7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회고모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남아프리카, 인도에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로므니아사회주의 동맹당,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남아프리카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연대성협회, 인디아대의정적연구소의 인사들과 중진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루는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진보적인류는

호칭과 더불어 불리우게 되었으며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창조물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사상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에 영생하신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연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켄케 마주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시고 조선인민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를 건설하시어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쟁을 바치고 인민주주위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견디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적노력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그이의 영도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넘긴하신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인디아대의정적연구소 소장 제이. 케이. 파델은 조선혁명과 세계적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브라질단체 블레진 발행 뿌리를 둔것이었다.

주석께서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당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경제적 망을 풀어주시는것은 인민의 아들로서 헌신하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었다.

주석의 이인위원의 리범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무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블레진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고 운명을 함께 하시었다고 하면서 그 어떤 특권과 특혜도 바라지 않았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절세위인의 인격적모를 열렬히 격찬하였다.

블레진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어려운 시기마다 김일성주석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자기 수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서 조선이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유엔안보이사회의가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을 류의한다고 밝힌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적대세력들의 나쁜 의도와 외교의 실책으로 된다.

원래 《천안》호침몰사건은 유엔에 끌고갈 하등의 필요도 리유도 없는 문제였다. 미국의 부주권침에 남조선피괴들이 조작해낸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이, 모순투성이로서 국내외의 커다란 의혹을 자아내며 물의를 일으켰다.

남조선의 야당과 시민단체들, 재미교포들까지도 《천안》호사건이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조작해낸 모략적인 남조선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내놓고 그와 관련한 문건들을 유엔안보이사회의에 제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남조선피괴들이 발표한 《조사결과》의 많은 측면들이 명백치 않고 의심을 자아내다고 하면서 물기 힘든 《수수께끼》라고 평하였다.

남조선피괴들이 미국상선과 작당하여 발표한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가 사실과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 의문투성이모략이라는것이 애초부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유엔에 끌고간 자체가 사건이 반공화국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괴뢰조선에 《어뢰공격》을 가했다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주장에는 그 어떤 합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이 《천안》호침몰사건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국제사회계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과 연관시키는데 대하여 도리질 한것으로 그와 중요한 관련된다.

그러나 대조선피괴들이 팔수에 박한자들은 사건을 반공화국음모의 도구로 삼았다. 미당국자들이 일당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과 연관시키는데 대하여 도리질 한것으로 그와 중요한 관련된다.

그런데 대조선피괴들이 팔수에 박한자들은 사건을 반공화국음모의 도구로 삼았다. 미당국자들이 일당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과 연관시키는데 대하여 도리질 한것으로 그와 중요한 관련된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진범인

나이제리아신문과 프랑잡지 글 게재

6. 25-7. 27만미공 동맹월간지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신문과 프랑잡지 글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6월 22일부는 《60년전 조선전쟁의 발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를 계곡의 그 어느 지역이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요충지, 세계제패를 위한 견결지,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있던 미국은 1945년 《해방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에 피어느 되어 미쳐달렸으며 치밀한 준비로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정통의 이념을 전쟁도발발자로 정한 미국의 속살을 증빙자료를 들어 까밝히고 60년전에 미국이

프랑스잡지 글 게재

조선전쟁을 도발했다는것은 론의할 여지조차 없이 명백하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전적으로 벗어났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잡지 《데모크라트》 6월호는 《조선전쟁이 준 력사적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할 때 미국은 자들의 수적, 기술적우세에 의하여 청소된 공화국을 쉽게 정복할수 있었지만 조선전쟁이 발발한 후 실지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수차례적으로 맹목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전쟁협정의 체결과 함께 미국에서는 패전을 통탄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전 미국주판관 마샬은 《신화는 깨어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한것처럼

이 폭로

미국은 저들이 일으킨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누구나 평양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가면 청년학생들이 전쟁영웅들의 해설을 들을것이고 그것을 목격할수 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저들의

수출 증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5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 증가하였다. 이 기간 특히 원유와 가스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한다.

1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강철 생산

이란에서 올해 5월에 강철생산량이 102만 7 000t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여 8%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 신문 《이란 뉴스》

발 전 도 상 나 라 들 에 서

세계 여러 지역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부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히 이 나라들에서는 빈공청산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안정시키고 사회회전성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베네수엘라정부의 국가예산의 약 60%를 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돌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 취하고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에 나라의 빈공율은 1998년의 4.8. 1%로부터 24. 2%로 감소되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에서 빈공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또한 과학자, 연구사수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2만 8 000여명으로 과학실현실을 1 200개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알제리정부는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약 1억 4 000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올해에 도 세계적으로 약 6 400만 명의 빈공자가 새로 더 생겨날 것으로 보고있다.

빈공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실한 요구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

반이스라엘공동전선을 형성할것을 호소

이란국외 의장 알리 라리지가 1일 한 국제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슬람교나라들이 반이스라엘공동전선을 형성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슬람교나라들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무역관계를 단절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기후변화가 몰아오는 파국적인 재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 극심한 무더위가 들이닥치고있다. 지난 5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최고기온은 40. 6℃에 달하였다. 높은 기온으로 하여 27살 남성이 급사하여 3일 동안에 59명이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물과 전기사용량은 력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의 중앙기상대는 앞으로 감속성 서북풍과 섬서성 동부 및 남부, 호남성 남부, 강서성 남부, 화남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37℃에 달할것이며 베이징시와 산둥성 서북부, 섬서성 판중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38-40℃로 높아질것으로 예측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휩쓸고있다. 남부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최고기온이 40℃를 넘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베네치아에는 이미 무더위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전례없는 무더위로 이 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시체를 돌아보며 두들 내지 못하고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벨기에 등의 최고기온은 40℃에 달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침공행위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행위를 계속 강행하고있다.

6월 30일 라라호시 상공에 날아든 이스라엘군용기들은 여러 기의 미사일 발사하여 비행장 등을 파괴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한편 7일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침공행위를 또다시 강행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땅크와 장갑차들을 앞세우고 칸 유니시시와 그 주변지역에 쳐들어 가 살인적과 공공건물들을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결과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